

2024년  
고2  
3월 학평

2024년 시행 고2 3월 학평 국어 문학 | 청산도, 숲으로 된 성벽, 지지헌기 변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동동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었 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빠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 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울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빠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

(나)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①**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 기형도, 「숲으로 된 성벽」

(다)

“이른바, **지지(止止)**라는 것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그 그칠 곳이 아닌 데에 그치  
면, 그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것이 아니다.

또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은 늪과  
못이나 굴에 있어야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  
인데, 가령 본고장을 떠나서 혼잡한 성시(城市) 가운  
데에 그친다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  
칠 것은 필연한 일이다.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  
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의 지경에 그치  
게 된다면, 이는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  
룡이 성시에 그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은  
내가 그 그칠 곳을 구하여 그치는 것이다. 그렇지 않  
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치는 자가  
이 될 것이다.”

하였더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자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산림이나 궁곡에 처하  
여 다른 사람들과 복잡하게 한곳에 있지 않은 연후  
에야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다. 이제 자네가  
그친 곳은 곧 성시의 가운데인데, 오히려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하여,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  
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  
엇인가?”

하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벌레와 짐승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은 역시 각각 그 그침의 떳떳한 것이다. 가령 사람이 늪과 못에 엎드리고 굴에 들어간다면, 역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독충이나 맹수가 또한 반드시 재앙으로 여기고 떼를 지어 해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여 벌레와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을 나는 차마 하지 못한다.

또 사람이 사람을 꺼리어 해치기를 꾀하는 것은, 성시가 좁아서 같이 처하는 것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구하는 것과 그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여, 비록 대낮에 ㉠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이 또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같은데,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내가 거처를 이렇게 이름한 것은 대개 이러한 뜻이다.”

정묘년 3월 10일에 기(記)한다.

- 이규보, 「지지헌기」

- \* 교룡: 뱀을 닮은 상상 속 동물
- \* 명리: 명예와 이익

**학평 변형 문제**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일부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며 여운을 형성한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대상을 반복적으로 호명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말줄임표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시상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청산’을 의인화하며 말을 건네는 어조로 시상을 전달하고 있다.
- ③ ‘불이 고운 사람’은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다.
- ④ ‘티끌’과 ‘벌레’는 모두 화자의 비관적인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 ⑤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라는 역설적 표현을 활용해 화자의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② ㉠은 ㉡과 달리 아무에게나 허락된 공간이다.
- ③ ㉡은 타인과 맞서 싸워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 ④ ㉡은 ㉠과 달리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글쓴이)가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를 의미한다.

**학평 변형 문제**

**4.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 속 공간의 특성은 해당 공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인물을 통해 드러난다. 동일한 공간이라도 인물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대개 공간에 어울리는 인물만이 그 공간의 온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 ① (가)의 '사슴', '바람'은 화자를 힘들게 하는 시련을 의미한다.
- ② (가)의 '푸른 산'은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건강한 세계를 의미한다.
- ③ (나)의 '성 안'은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
- ④ (나)의 '골동품 상인'은 '농부들'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존재이다.
- ⑤ (다)의 '나'는 '어떤 이'의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5. (다)의 구절과 관련지어 **지지(止止)**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시(城市)'에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과 함께 하는 삶을 의미한다.
- ② 사람들이 '늪과 못이나 굴'에 들어가 사는 삶을 의미한다.
- ③ '상자'를 훔쳐 가는 자가 없다면 이를 수 있는 것이다.
- ④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 ⑤ '성시'에서 벗어나 '산림'과 '궁곡'에 가야만 이를 수 있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똥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었 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울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발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하나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

(나)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 기형도, 「숲으로 된 성벽」

(다)

“이른바, 지지(止止)라는 것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그 그칠 곳이 아닌 데에 그치

면, 그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것이 아니다.

또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은 늑과 못이나 굴에 있어야 그 그침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인데, 가령 본고장을 떠나서 혼잡한 성시(城市) 가운데 그친다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칠 것은 필연한 일이다.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의 지경에 그치게 된다면, 이는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그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은 내가 그 그침 곳을 구하여 그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치는 자가 이를 것이다.”

하였더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자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산림이나 궁곡에 처하여 다른 사람들과 복잡하게 한곳에 있지 않은 연후에야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다. 이제 자네가 그친 곳은 곧 성시의 가운데인데, 오히려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하여,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늑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벌레와 짐승이 늑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은 역시 각각 그 그침의 몇몇한 것이다. 가령 사람이 늑과 못에 었드리고 굴에 들어간다면, 역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독충이나 맹수가 또한 반드시 재앙으로 여기고 때를 지어 해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여 벌레와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을 나는 차마 하지 못한다.

또 사람이 사람을 꺼리어 해치기를 피하는 것은, 성시가 좁아서 같이 처하는 것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구하는 것과 그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여, 비록 대낮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이 또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늑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같은데,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내가 거처를 이렇게 이름한 것은 대개 이러한 뜻이다.”

정묘년 3월 10일에 기(記)한다.

- 이규보, 「지지헌기」

\* 교룡: 뱀을 닮은 상상 속 동물

\* 명리: 명예와 이익

##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돈호법과 점층법을 활용해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②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농부들’, ‘골동품 상인’과 동일하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 일반적인 통사 구조와 다른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 ⑤ ㉣: ‘나’에 따르면 ‘지지(止止)’가 실현된 것이다.

## 7. (가)~(다)의 표현상(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 공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다): 문답의 형식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8. 다음은 (가)~(다)의 화자(글쓴이)의 대화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않네요. 언젠가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 믿어요.
- ② (나): 저는 그러한 좋은 세상이 ‘성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③ (다): 맞아요. 그렇게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따라서 ‘산림’에 가야만 ‘지지’를 실현할 수 있어요.
- ④ (가): 좋은 세상이 오면 ‘사슴’도 오고 ‘바람’도 불겠죠?
- ⑤ (나): 아, 좋은 세상에 가면 농부들과 당나귀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9.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와 역설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동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상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연을 구분하지 않는 단연체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활용해 화자의 반성과 자조를 드러낸다.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솔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똥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어트 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빠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 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울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발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빠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광복 직후 이념 대립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분열되었던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도 드러나 있지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여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도 드러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소멸과 생성이라는 순환적 자연의 질서가 내재된 공간이자,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지닌 포용의 공간인 '산'의 속성을 바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금빛 기름진 햇살'을 통해 산이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지닌 공간임을 알 수 있군.
- ②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을 통해 화자가 그리워했던 대상이 포용적 속성을 지닌 청산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티끌 부는 세상'을 통해 분열과 대립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시선을 느낄 수 있군.
- ④ '달 가고, 밤 가고', '빛난 아침 이르면' 등을 통해 산이 소멸과 생성의 질서가 내재된 공간임을 알 수 있군.
- ⑤ '티어울 밝은 하늘', '너만 그리노라' 등을 통해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과 소망을 느낄 수 있군.

11. 윗글을 (가), <보기>를 (나)라고 할 때,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뱀발 때문이었다  
뱀발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無爲)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뺨발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 문정희, 「울포의 기억」

- ① 어순의 도치를 활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내면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과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행간 걸침을 활용하여 시구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⑤

(가)는 ‘철철철’, ‘줄줄줄’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상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지 않았다.

- ① (가)는 ‘나’라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부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며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대상을 반복적으로 호명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나)는 대상을 호명하고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를 활용해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2. 정답 ⑤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는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화자의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을 뿐, 역설적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다.

- ①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에서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청산’을 ‘산아’라고 부르거나 ‘네 가슴’이라고 하는 등, ‘청산’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어조로 시상을 전달하고 있다.
- ③ ‘볼이 고운 사람’은 현재 부재하는 대상으로, 화자가 기다리는 이상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 ④ 화자는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라고 말하며 현실에 대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3. 정답 ④

(나)의 ‘그’는 숲에 들어가기 위해 ㉠을 잘라내고 있으므로, ㉠은 ‘그’가 숲에 들어가려는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대상이다. 이에 비해 (다)의 ‘나’는 누군가 ㉡을 훔쳐 가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나’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을 잘라낸 것은 화자가 아니라 ‘골동품 상인’이다.

② ㉠은 ‘농부들’, ‘작은 당나귀들’과 달리 ‘골동품 상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다.

③ (다)의 글쓰이는 ㉡을 훔쳐 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나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⑤ ㉡을 이익, 재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다)의 글쓰이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은 자연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 4. 정답 ①

(가)의 화자는 현실을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는 상황으로 인식하며 비관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사슴’과 ‘바람’이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가)의 화자는 해방 후에도 이상적인 세계가 오지 않았다고 인식하며, 언젠가 ‘푸른 산’과 같이 깨끗한 세상, 건강한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성 안’은 ‘신들’이 사는 곳이라는 점에서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골동품 상인’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순수한 ‘농부들’과 대비되는 존재로, 자연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⑤ (다)는 ‘어떤 이’의 질문과 그에 대한 ‘나’의 답변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5. 정답 ④

(다)의 ‘나’는 ‘사람이 사람을 꺼리어 해치기를 꾀하는 것은, 성시가 좁아서 같이 처하는 것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구하는 것과 그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상자’를 훔쳐 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해칠 자가 없다고 말하며 마음먹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① (다)의 ‘나’는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은 늪과 못이나 굴에 있어야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람이 사는 성시에 온다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다)의 ‘나’는 사람이 늪과 못에 엮드리고 굴에 들어간다면 역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하며 이는 그칠 곳

을 알아서 그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③ (다)의 '나'는 대낮에 상자를 훔쳐 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해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⑤ '지지'를 '산림', '궁곡'에 처해야만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은 '어떤 이'이다. '나'는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6. [정답] ③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농부들', '작은 당나귀들', ㉠이다. '골동품 상인'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적인 존재이다.  
 ① ㉠에서는 '산아'라고 대상을 호명하는 돈호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점층법을 활용해 산을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② ㉡에서 '향기로운'이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산'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은 서술어로 문장을 종결하는 일반적인 통사 구조와 다른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며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⑤ '나'는 ㉣은 사람이 성시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그침이 떴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을 '지지'가 실현된 것으로 볼 것이다.

7. [정답] ③

(나)는 화자의 독백을 통해 주제가 전달되고 있을 뿐, 두 인물의 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가)는 '푸른 산', '푸른 언덕' 등의 긍정적 시어와 '티끌', '벌레' 등의 부정적인 시어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② (가)는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등에서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④ (나)는 '성 안'과 '궁터'라는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⑤ (다)는 '나'와 '어떤 이'의 문답 형식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8. [정답] ③

(다)에서 '산림'과 '궁벽'에 처해야만 '지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어떤 이'이다. 글쓴이('나')는 어디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산림'에 가야만 '지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① (가)의 화자는 '사슴도 안 오고 ~ 빠꾸기.....'라고 말하며 여전히 이상향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언젠가는 '불이 고운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말하며 '청산'을 '그리'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나)에서 '성 안'은 '신들'이 사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이다. 따라서 (나)의 화자는 '성 안'에 좋은 세상이 있다고 믿을 것이다.  
 ④ (가)의 화자는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세상이 온다면 '사슴'도 오고 '바람'도 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나)의 '농부들은 아직도 ~ 당나귀들 역시'를 통해 '성 안'에는 '농부들'과 '당나귀들'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정답] ②

(나)는 동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신비롭고 평화로운 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① (나)는 반어와 역설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화자의 의지도 확인할 수 없다.  
 ③ (나)는 화자의 독백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나)는 전 3연으로 구성된 분연체이다.  
 ⑤ (나)의 말춤임표가 활용된 것은 맞지만, 화자의 반성과 자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0. [정답] ②

화자가 '불이 고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이 고운 사람'은 현재 청산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불이 고운 사람'과 화자가 청산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금빛 기름진 햇살'에서 '금빛'을 통해 '산'의 아름다움을, '기름진'을 통해 '산'의 풍요로움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티끌 부는 세상'은 '벌레 같은 세상'과 함께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는데, <보기>에서 현실을 '광복 직후 이념 대립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분열되었던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산'에서 일어나는 변화로서, '달 가고, 밤 가고'

는 '소멸'의 의미를, '빛난 아침 이르면'은 생성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여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태도'에서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과 소망을 확인할 수 있고, '티어올 밝은 하늘'에서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너만 그리노라'에서 긍정적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목민배보공문서